

에스겔의 계약 신학¹⁾

김선종*

들어가는 말

에스겔서는 레위기와 함께 구약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책 가운데 하나이다. 에스겔서에는 다른 책에 비하여 상징과 비유와 은유가 많이 나타나고, 에스겔의 탈혼 현상은 오늘날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제사장 신학 전통의 유산을 이어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에스겔이 쏟아내는 외설적인 언어는 현대의 독자마저도 거룩한 경전에서 대하기에 매우 낯설다.

독자들은 이러한 에스겔서의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에스겔 16-17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본문에는 구약신학의 주요 주제인 ‘계약’이라는 낱말이 에스겔서 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18회 가운데 12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외설적이고 은유적인 언어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에스겔 16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계약의 언어로 묘사하고, 17장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구현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고(NRF-2013S1A5A8025581), 2014년 4월 25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제 95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귀한 논찬을 해주신 구자용 박사님께 감사한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에스겔 16장 59-63절과 17장 11-21절에 나타난 에스겔의 계약 신학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 맺은 정치 조약을 그 본문이 위치한 자리(Sitz im Buch)에서 살펴봄으로써, 에스겔의 계약 신학을 분석하고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의도적 모호성(intentional ambiguity)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2. 에스겔서의 ‘계약’

2.1. ‘브리트’(ברית)의 번역어

우리말 ‘약속,’ ‘언약,’ ‘계약,’ ‘협약’ 등으로 옮기는 히브리 낱말 ‘브리트’는 그 낱말 자체의 어원과 뜻이 분명하지 않다. 학자들은 대개 그 어원을 ‘떡다,’ ‘보다,’ ‘속박하다,’ ‘사이에’ 등으로 추정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²⁾ 또한 무엇보다 어떤 낱말의 어원이 반드시 그 낱말의 뜻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는 사실은 성서언어학의 기본 공리이다.³⁾ 이러한 점에서 ‘브리트’의 어원에 대한 연구는 그 낱말의 뜻을 규명하는데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차선책으로 히브리 낱말 ‘브리트’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을 고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어에 대한 번역의 문제는 단지 그 대응어를 찾는 문제를 넘어, 번역자의 신학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브리트’를 흔히 ‘약속,’ ‘언약,’ ‘계약’으로 옮기지만, 이러한 우리말 낱말은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따르면 언약은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뜻하며,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2) 노희원, “구약의 계약(ברית)에 대한 어의론적 연구,” 『신학논단』 12 (1995), 7-14; 박준서, “구약 계약신학의 연구: 제사기자의 계약신학을 중심으로,” 『구약세계의 이해』 (서울: 한들출판사, 2001), 58-62.

3) J. 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SCM Press, 1983), 100-106.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 계약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으로 정의한다.⁴⁾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약속과 언약은 쌍방 혹은 다자 사이의 약속 뿐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도 가리킬 수 있는 반면, 계약은 양쪽이 서로에게 지우는 의무를 약속이나 언약보다 더 강조한다. 또한 계약이 약속이나 언약보다 더 법적인 효력을 강조하는 느낌을 주며, 더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나 언약은 구약성경이나 구약 주변세계의 계약 체결에서 일방적인 편무 조약은 설명할 수 있지만, 쌍방이 체결하는 쌍무 조약은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⁵⁾ 편무 조약은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할 것을 명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쿠츠키(Kutsch)가 '브리트'를 '의무'로 정의한 것은 가능하지만,⁶⁾ 히브리 낱말 '브리트'가 동등하거나 서로 지위가 다른 사람이나 집단 사이의 계약을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쪽만이 지는 '의무'만으로는 '브리트'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브리트'는 그 낱말이 속한 문맥이나 상황에 비추어 '약속,' '언약,' '계약,' '협약'(겔 17:15, 16, 18의 『공동번역』) 등으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

4) <http://stdweb2.korean.go.kr/main.jsp>의 '약속,' '언약,' '계약' 항목 참조.

5) 편무 조약과 쌍무 조약을 위해서는 노희원, "구약의 계약(ברית)에 대한 어의론적 연구," 25-31; 박준서, 김영진, "고대 근동의 국제 관계와 국제 조약에 관한 비판적 연구," 『구약논단』 12 (2002), 189-199를 보라.

6) E. Kutsch, "ברית obligation," *TLOT* I, 256-266. 물론 쿠츠키는 '브리트'가 쌍방의 책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쌍무적인 의미가 덜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다.

2.2. 에스겔서에서 ‘브리트’의 용례

구약성경에서 총 287회 나타나는 ‘계약’은 창세기와 신명기에 각각 27회, 예레미야에 24회, 여호수아서에 22회, 시편에 21회, 에스겔에 18회(겔 16:8, 59, 60[x2], 61, 62⁷⁾; 17:13, 14, 15, 16, 18, 19; 20:37; 30:5; 34:25, 37:26[x2]; 44:7) 등으로 나타난다.⁸⁾ 이러한 점에서 계약 신학은 에스겔서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계약’이라는 낱말은 에스겔서 전체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전체 18회 가운데 16-17장에 12회(16장과 17장에 각각 6회)로 이 두 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일부 주석가들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계약’이라는 낱말이 주로 16장과 17장에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계약 신학은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⁹⁾ 에스겔 학파에 속한 사람들의 후대 첨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¹⁰⁾ 이러한 가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것은 에스겔서 48장을 1-32장과 33-48장의 대칭 구조로 볼 때,¹¹⁾ 전반부는 주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서,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계약 신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계약(ברית עולם)을 말하고 있는 점에서 ‘계약’을 포함하는 단락의 전체 맥락에서도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¹²⁾

7) 겔 16장과 레위기 26장에 나타나는 표현을 위해서는 C. J. H. Wright, 정옥배 역, 『에스겔 강해: 새 마음과 새 영』, (서울: IVP, 2004), 209-210을 보라.

8) 용례를 위해서는 E. Kutsch, “ברית obligation,” 257을 보라.

9) E. Kutsch, “ברית obligation,” 256-266.

10) W. Zimmerli, *Ezek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348; J. W. Wevers, *Ezekiel*, NCBC (Michigan: Eerdmans, 1982), 103; B. Vawter and L. J. Hoppe, *A New Heart: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zekiel* (Grand Rapids: Eerdmans, 1991), 97-98. M. H. Woudstra, "The Everlasting Covenant in Ezekiel 16:59-63," *CTJ* 6 (1971), 23-24는 이러한 입장을 거부한다.

11) 박동현, 『구약성경개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126.

12) ‘영원한 계약’이 겔 37:26에도 다시 나오는데, 이 단락은 마른 뼈의 환상(37:1-14) 다음에 두 나무(37:15-28), 곧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되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에 나타나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다. 박혜경, “에스겔의 나무와 요시아 종교개혁 -에스겔 37:15-28에 나타난 상징과 역사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이 글에서는 기존 편집비평가들이 주장하듯이, ‘계약’을 포함하는 본문이 비교적 후대에 기원하는 본문이라는 점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편집사가들의 입장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려 시도하는데, 이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에스겔 16장 59-63절의 계약 단락을 그 단락을 감싸고 있는 단락(겔 16:1-58; 17:1-12)과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계약 관련 문맥(17:13-19)과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구약성경의 계약 신학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듯이, 계약은 단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매개하는 방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계약의 체결과 유지와 파기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 생성소멸을 상징한다. 즉 하나님이 백성과 계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탄생을 가리키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는 것을 뜻하며,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끊어진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에스겔 16장과 17장에 나타난 계약의 체결과 유지와 파기는 예언자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마디로 요약한 축소판에 해당한다.¹³⁾

물론 히브리 낱말 ‘계약’의 용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에스겔서의 계약 신학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브리트’라는 낱말만이 계약 신학을 독점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 ‘맹세’(נִבְרָא)와 ‘사랑’(רַחֵם) 등의 동의어 역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계약체결 양식(covenant formula)도 비록 ‘계약’이라는 낱말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계약 신학을 반영한다(겔 11:19-20; 14:11; 34:24; 36:28; 37:23, 27 등

80 (2012), 82-59를 참조하라.

13) B. N. Peterson, *Ezekiel in Context: Ezekiel's Message Understood in Its Historical Setting of Covenant Curses and Ancient Near Eastern Mythological Motifs*(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s, 2012), 176.

14) ‘계약’의 동의어를 위해서는 노희원, “구약의 계약(ברית)에 대한 어의론적 연구,” 18-19를 보라.

).¹⁵⁾ 또한 동의어나 분명한 계약체결양식이 나오지 않더라도, ‘손을 주다’(תָּן תָּן)와 같은 관용어 표현 역시 계약 체결을 구상화한다(대상 29:24; 애 5:6; 참조, 삼하 3:12).¹⁶⁾ 예를 들어, 사무엘하 7장과 상응하는 본문인 역대상 17장에 ‘계약’이라는 낱말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본문을 ‘다윗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¹⁷⁾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 신학의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인정한 채, 주로 ‘계약’이라는 낱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에스겔 16-17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2.3. 에스겔 16-17에 나타난 계약 관련 행위

일반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행위는 계약 체결, 유지, 파기로 나눌 수 있다.¹⁸⁾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에스겔 16-17장에 12회 나타나는 계약 관련 행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6:8	16:59	16:60 상	16:60 하	16:61	16:62
동사	בוא 체결	פרר 폐기	זכר 유지	קום 체결		קום 체결
계약	ברית 계약	ברית 계약	בריתי 나의 계약	ברית עולם 영원한 계약	בריתך 너의 계약	בריתי 나의 계약
상대자	너		너	너		너
동의어		אלה				

15) J. W. Wevers, *Ezekiel*, 103.

16) O. Keel, *The Symbolism of the Biblical Worl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and the Book of Psalms* (Indiana: Eisenbrauns, 1997), 96. 개역개정판은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이라고 번역하며,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언약하였거늘’을 작은 글씨체로 나타낸다.

17) 황선우, “역대하 21, 23장의 다윗 계약에 나타난 다윗 왕조 회복의 소망,” 『Canon&Culture』 6 (2012), 97, 각주 2.

18) P. Buis, *La notion d'alliance dans l'Ancien Testament*, LD 88 (Paris: Cerf, 1976), 16-21.

	17:13	17:14	17:15	17:16	17:18	17:19
동사	כרת 체결	שמר 유지	פרר 폐기	פרר 폐기	פרר 폐기	פרר 폐기
계약	ברית 계약	בריתו 그의 계약	ברית 계약	בריתו 그의 계약	ברית 계약	בריתי 나의 계약
상대자	그					
동미어	אלה			אלה	אלה	אלה

구약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동사는 에스겔 17장 13절에 나타나는 ‘카라트’(כרת)인데 비해, 에스겔 16장 60절과 62절은 ‘쿰’(קום)의 사역형 ‘헤킴’(הקים)을 사용한다. 이는 제사장 문서와 성결 법전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표현으로(창 6:18; 9:9, 11; 17:7, 19, 21; 출 6:4; 참조, 신 8:18), 계약 체결에서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¹⁹⁾ 제사장 가문 출신의 예언자 에스겔이 계약 체결과 관련된 동사로서 제사장이 특별히 좋아하는 낱말인 ‘헤킴’을 사용한 것은 자연스럽다.²⁰⁾ 다른 한 편, 계약 폐기와 관련된 동사는 ‘헤킴 브리트’의 반의어인 ‘파라르’(פרר)로 이러한 반의어의 짝(‘헤킴’과 ‘파라르’)은 민수기 30장 14절에도 나타난다.²¹⁾ 에스겔 16-17장에 나타나는 ‘계약’과 계약과 관련된 동사들의 나열은 레위기 26장의 양식에 대한 요약과 모방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²²⁾

19) S. Amsler, “קום *qum* austehen,” THAT 2, 640.

20) 제사장 전통의 문서와 에스겔의 언어의 유사성을 위해서는 A. Hurvitz,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Cahiers de la Revue biblique 20 (Paris: J. Gabalda, 1982)을 보라.

21) M. Greenberg, *Ezekiel 1-20*, AB 22 (New York: Doubleday, 1983), 291를 참조하라.

22) M. Fishbane, “Sin and Judgement in the Prophecies of Ezekiel,” *Interpretation* 38 (1984), 147; C. J. H. Wright, 『새 마음과 새 영』, 209-210. 레위기 26장의 용례를 위해서는 김선중,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 『Canon&Culture』 8 (2014), 195-220을 보라. 또한 계약 파기와 관련된 복수의 개념을 위해서는 H. G. L. Peels, *The Vengeance of God: the Meaning of the Root NQM and the Function of the*

에스겔 17장에는 ‘계약’의 6번 용례 가운데, 처음의 두 번만 체결 혹은 유지이고 나머지는 계약 폐기를 나타냄으로써, 독자들이 본문을 읽지 않고도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다섯 번은 ‘계약’(ברית) 혹은 ‘그의 계약’(בריתו)이 나타나는 반면에, 마지막에 ‘나의 계약’(בריתי)이 나타남으로써 3인칭 ‘그’(느부갓네살)와 맺은 계약에서 갑자기 1인칭 ‘나’(하나님)와 맺은 계약으로 급작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국가 혹은 국가의 지도자와 맺은 정치 조약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 사이에 연속성 혹은 긴장의 관계를 일으킬 것을 예견할 수 있다.

3. 에스겔 16-17장의 계약 신학

3.1. 겔 16장에서 살펴본 겔 16:59-63

모두 63절로 이루어져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에스겔 16장은 역사적, 신학적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²³⁾ 그 가운데 59-63절의 다섯 구절은 ‘계약’을 주제로 하여 하나의 단락을 형성한다.²⁴⁾

NQM - Texts in the Context of Divine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OTS 31 (Leiden - New York- Köln: Brill, 1995), 103-108을 보라.

- 23) 겔 16장에 대한 세밀한 구조를 위해서는 R. M. Hals, *Ezekiel,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19 (Michigan: Eerdmans, 1989), 100-105; M. G. Swanepoel, "Ezekiel 16: Abandoned Child, Bride Adorned or Unfaithful Wife?," P. R. Davies and D. J. A. Clines eds., *Among the Prophets: Language, Image and Structure in the Prophetic Writings*, JSOTS 14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93-94를 보라. 겔 16장의 구조에 대한 여러 견해를 위해서는 이종록, 『용서와 회개』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7), 291-292를 보라.
- 24) 『개역개정』은 59절을 1-58절을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보고 있는 반면, 『새번역』은 ‘계약’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60-63절을 여는 구절로 본다.

59 나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נִשְׁבַּע)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60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1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2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겔 16:59-63, 『개역개정』)

독자들은 이 본문을 따로 읽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이 어떠한 성질의 계약인지 유추하기 쉽지 않다. 물론 계약이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인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하여 그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지만,²⁵⁾ 위의 단락 자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명시하지 않는다.²⁶⁾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이는 겔 16장 1-58절의 은유와 그 안에 있는 8절의 명시적 선언에서 가능하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겔 16:8, 『개역개정』)

먼저 에스겔 16장 1-5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그런데 독자들이 특별히 이 단락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앞의 서론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외설적인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한 출생과 치욕적인 성장과 그 비참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겔 16:25, 26, 36; 23:20-21 등).²⁷⁾

25) 대표적으로 G. Hugenberger, *Marriage as a Covenant: a Study of Biblical Law and Ethics Governing Marriag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Malachi*, SVT 52 (Leiden - New York: Brill, 1994).

26) R. M. Hals, *Ezekiel*, 108.

에스겔 16장은 이미 처음부터 법정 고소 양식으로 시작하여(1-2절),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한다. 이스라엘은 본래 그 부모가 이방에 기원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3절). 이러한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에 불과했다(4-6절). 야훼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키우고, 성숙하게 된 여인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는다(7-8절). 8절에서 옷으로 몸을 덮는 행위는 룻기 3장 9절에서처럼 결혼할 뜻을 상징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꾸미고 존귀한 왕비처럼 대한다(9-14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음욕에 불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과 음행하고,²⁸⁾ 결혼을 통해 얻은 아이들조차 인신제사로 드린다(15-22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매춘에 해당하고, 다음의 23-34절은 정치적 매춘에 해당한다.²⁹⁾ 그리하여 23-3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녀 이스라엘은 애굽과 앗수르와 바빌론 남자들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음행을 한다. 이스라엘은 창녀보다 못한 것으로 비난받는데, 이는 화대도 받지 않고, 오히려 몸값을 주며 음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세력과도 어떠한 협정도 맺지 말아야 할 것을 뜻한다.³⁰⁾ 이러한 죄의 지적 다음에 35-52절에서는 ‘그러므로’(כֵּן)라는 말로 시작

27) 유연희, “성서의 성(性):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 (2010), 53은 에스겔 16장과 23장이 여성의 성을 가장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묘사한다고 주장한다. F. van Dijk-Hemmes, “Metaphorization of Women in Prophetic Speech: An Analyze of Ezekiel xxiii,” *VT* 43 (1993), 162-170은 에스겔 16장과 20장을 포르노그래피 용어와 범주를 가지고 분석한다.

28) ‘음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자나’(זָנָה)와 그 파생 명사 ‘창녀’(זָנָיִת)가 에스겔 서 총 23회 가운데 16장에만 12번 나타나며(15, 16, 17, 26, 28[x2], 30, 31, 33, 34, 35, 41절), 16장과 주체적으로 쌍을 이루는 23장에 8번 나타난다(3[x2], 5, 19, 30, 43[x2], 44절). 즉 전체 23회 가운데 16장과 23장에만 모두 20회 나온다.

29) C. J. H. Wright, 『새 마음과 새 영』, 191-198.

30) C. J. H. Wright, 『새 마음과 새 영』, 198. 이스라엘과 유다가 앗수르, 바벨론, 애굽에 보낸 공물 지불 현황을 위해서는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7), 498, 각주 206을 보라.

하여 음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종교의 차원과 정치의 차원에서의 배신행위 때문이며, 이러한 배신은 매춘과 관련된 외설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로 고발된다. 그러나 이러한 죄 지적과 심판 선언에 이어 53-58절에서는 사마리아와 소돔의 회복에 대한 예고가 나오므로써,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 떠났지만, 결국 백성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실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3.2. 겔 16-17장에서 살펴본 겔 16:59-63과 겔 17:11-21

에스겔 16장 59-63절의 계약 관련 단락 다음에 나오는 17장은 이스라엘의 외교 전략과 정치 상황을 고발한다. 에스겔 17장 역시 앞 장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에스겔 16장이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은유와 서술로 이루어진다면, 에스겔 17장은 이스라엘과 외국의 관계를 우화로 비유하며, 이어서 그 비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에스겔은 ‘맹세를 업신여기고 계약을 배반하다’(בְּרִיתִי לְהַפְּרֹתָ אֶלֶּהָ)라는 에스겔 16장 59절의 표현을 17장 16, 18, 19절에 가져와 다시 반복(Wiederaufnahme)한다.³¹⁾ 이러한 점을 통해 독자들은 에스겔 16장과 17장이 단일한 최종 편집자의 작업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의 단락임을 알게 된다.

결혼 은유	계약 신학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정치 조약
16:1-58	16:59-63 (16:59)	17:1-10	17:11-21 (17:16, 18, 19)

31) 『개역개정』은 이들을 각각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다’(16:59),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다’(17:16),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다’(17:18),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다’(17:19)로 서로 다르게 번역한다.

에스겔 17장 1-10절을 따르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은 독수리 두 마리를 쫓는 삶을 살아간다. 크고 멋진 첫째 독수리가 씨앗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니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를 보고 자기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 뺏자, 이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옮겨 물가 옥토에 심어 고상한 포도나무가 된다. 앞의 독수리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뒤의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독수리 두 마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식한 포도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신다. 이러한 우화에 대하여 17장 11-21절은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조망한다.

16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מַלְּאָה)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 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 이라... 18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מַלְּאָה)를 업신여 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19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מַלְּאָה)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 를 그 머리에 돌리되

비록 위의 본문에는 당시 바벨론 임금과 그가 세운 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구라고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석가들은 열왕기하 24:18-25:7,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본문(대하 36:11-12; 렘 27-29; 52:1-3 등)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일 것으로 추정한다.³²⁾ 에스겔 17장 13절에서 계약과 맹세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부여한 조약 의무와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 왕에게 지켜야 할 충성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³³⁾ 또한 우리말 ‘맹세’로 옮긴 히브리 낱말 ‘알라’(אָלָה)는 봉신

32) M. Tsevat, "The Neo-Assyrian and Neo-Babylonian Vassal Oaths and the Prophet Ezekiel," *JBL* 78 (1959), 199-204.

조약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저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³⁴⁾ - 비록 그 정치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시드기야라는 이름 역시 성서 이외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맺은 정치 조약을 반영한다. 시드기야는 당시 주변의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맺은 정치 조약(겔 17장의 『공동번역』에서는 ‘협약’)을 무시하고, 느고 2세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된 애굽의 프삼메티쿠스(Psammetichus) 2세에게 도움을 구하며 애굽과 정치 조약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³⁵⁾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역사의 상황에 대하여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하고 바벨론을 독수리에 비유한다(렘 48:40; 49:22; 겔 17:3-8). 그런데 잠시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하고 애굽의 군대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진격하자 애굽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렘 27:9, 16)들의 외교 정책을 시드기야는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³⁶⁾ 그러나 프삼메티쿠스는 사실상 팔레스틴에 대한 애굽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원정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⁷⁾

33) R. W. Klein, 『에스겔: 예언자와 그의 메시지』, 박호용 역 (서울: 성지출판사, 1999), 182.

34) J. A. Durlesser, *The Metaphorical Narratives in the Book of Ezekiel* (New York: Edwin Mellen Press, 2006), 118; A. M. Kitz, *Cursed Are You!: The Phenomenology of Cursing in Cuneiform and Hebrew Texts* (Winona Lake: Eisenbrauns, 2014), 32-63.

35)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이스라엘, 바벨론, 애굽의 왕의 정체를 위해서는 M. Greenberg, "Ezekiel 17 and the Policy of Psammetichus II," *JBL* 76 (1957), 304-309; R. W. Jenson, *Ezekiel*, Brazos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Bible(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139를 보라. 프삼메티쿠스 비문의 내용을 위해서는 L. L. Grabbe, *Ancient Israel: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 (London: T&T Clark, 2007), 190-191을 보라.

36) 허성균, “예레미야와 에스겔 예언의 유사성 비교,” 『신학과 목회』 18 (2002), 33-35; D. Rom-Shiloni, “The Prophecy for ‘Everlasting Covenant’ (Jeremiah 32:36—41): An Exilic Addition or a Deuteronomistic Redaction?,” *VT* 53 (2003), 201—223.

37) J. M. Miller, J. H. Hayes,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

이 단락에서 6번 나타나는 ‘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주석가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먼저 보웬(Bowen)은 참된 조약은 하나님과 맺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 손을 잡고 정치 조약을 맺은 것 자체가 유다의 멸망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³⁸⁾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본문은 시드기야가 맺은 현실적인 정치 조약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맺은 조약은 단순한 정치 조약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친 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랑(Lang)과 블렌킨숍(Blenkinsopp) 등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맺은 맹세와 계약은 역대하 36장 13절³⁹⁾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한 정치 조약이라고 주장한다.⁴⁰⁾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손을 잡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과 조약을 맺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이라고 에스겔은 해석한다는 설명이다.⁴¹⁾ 곧 구약의 예언자는 현실 정치 자체를 무시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포괄하며 신앙의 눈으로 해석한다. 곧 현실 정치는 종교가 배제할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⁴²⁾ 이러한 가설은

스트, 1994), 519.

38) N. R. Bowen, *Ezek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97.

39)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40) B. Lang, *Kein Aufstand in Jerusalem: Die Politik des Propheten Ezechiel*, SBB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1), 57; J. Blenkinsopp, *Ezekiel*,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81; I. M. Duguid, *Ezekiel and the Leaders of Israel*, SVT 56 (Leiden: Brill, 1994), 34.

41) W. Eichrodt, *Ezekiel: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0), 226.

단지 성결 법전이나 신명기가 구약주변세계의 정치 조약과 형식과 내용에서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도 현실 정치와 외교에 민감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외교 조약의 언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⁴³⁾ 이러한 점에서 정치 조약과 종교 계약의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에스겔 16장의 ‘브리트’는 우리 말 ‘언약’ 또는 ‘계약’으로 옮기는 것은 무리 없지만,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애굽과 맺은 정치 조약이므로, ‘조약’ 또는 『공동번역』에서와 같이 ‘협약’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

3.3. 겔 16-17장의 계약과 조약, 종교와 정치

위의 입장을 따르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 맺은 정치 조약이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이거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맺은 계약과 동일시될 수 있다. 그러나 에스겔 16장과 17장을 더 세밀하게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종교 계약과 정치 조약 사이에 있는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클라인(Klein)은 19절에 나타나는 ‘나(야훼)의 계약’과 그 앞에 나타나는 ‘그(느부갓네살)의 계약’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⁴⁾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것은 19절 이전에서 느부갓네살의 계약을 가리키는 ‘그의 계약’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나의 계약’으로 전이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양식이 있는 신앙인들은 비록 에스겔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사자로 이해하지만, 그러한 제국주의의 도구도 다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사 14장; 렘 50-51장 등)에서 위안을 삼는 점에서 느부갓네살과 맺은 조약이 하나님이 맺으시는 영원한 계약이 될 수는 없다.⁴⁵⁾ 이러한 점에서 에스

42) B. N. Peterson, *Ezekiel in Context*, 175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43) 김선중, “예언자와 목회자,” 『신학이해』 45 (2013), 73-96.

44) R. W. Klein, 『예언자와 그의 메시지』, 184, 각주 13.

겔서에서 계약 신학은 정치 조약의 형식은 빌리더라도, 그 내용은 같을 수 없다. 그 형식과 내용이 중첩하기도 하지만, 융합되지 않는 긴장을 유지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와 같이 본문에 나타난 ‘계약’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에스겔 17장에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 맺은 계약에 대하여 주석가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주석가들의 몰이해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본문 자체가 고의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의도적 모호성(intentional ambiguity)⁴⁶⁾의 문학 기법으로, 에스겔은 에스겔 16장에서 ‘영원한 계약’(ברית עולם)이라는 표현과 17장의 계약 본문에서 ‘계약’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정치 사이의 긴장과 모호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에스겔 16장 60절에 나오는 ‘영원한 계약’은 이미 하나님이 백성과 세우신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이는 이사야 24장의 ‘영원한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⁴⁷⁾ 또한 데이비스(Davis)는 에스겔 17장의 비유(1-10절)와 비유에 대한 해석(11-21절) 자체가 모호하다고 주장한다.⁴⁸⁾ 그의 관찰은 매우 흥미로운데, 에스겔 17장 자체가 ‘수수께끼’(חידה)와 ‘비유’(משל)로 소개되는 점에서 그러하다(2절). 물론 에스겔 17장 11절 이하는 1-10절

45) W. H. Brownlee, *Ezekiel 1-19*, WBC 28 (Waco: Word Books, 1986), 269를 참조하라.

46) 히브리 문학과 우가릿 문서에 나타난 의도적 모호성을 위해서는 E. Ortlund, “Intentional Ambiguity in Old Testament and Ugaritic Descriptions of Divine Conflict,” *UF* 38 (2006), 543-556을 보라. H. Roose, “‘A Letter as by Us’: Intentional Ambiguity in 2 Thessalonians 2.2,” *JSNT* 29 (2006), 107-124도 참조할 수 있다.

47) R. W. Klein, 『예언자와 그의 메시지』, 142, 각주 24; R. B. Chisholm, Jr, “The ‘Everlasting Covenant’ and the ‘City of Chaos’: Intentional Ambiguity and Irony in Isaiah 24.,” *CTR* 6 (1993), 237-253.

48) E. F. Davis, *Swallowing the Scroll: Textuality and the Dynamics of Discourse in Ezekiel’s Prophecy*, *JSOTS* 78 (Sheffield: Almond, 1989), 95-104.

의 비유를 해석하고 있지만, 그 해석마저도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킨다고 데이비스는 주장한다. 그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은, ‘그의 계약’을 배반한 것에서 ‘나의 계약’을 배반한 것으로 급작스럽게 전환된 것이 다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에 따라 그(느부갓네살)와 맺은 계약이 나(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뜻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느부갓네살과 계약을 맺은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배반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에스겔은 하나의 본문에서 믿음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교차하여 배치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데, 데이비스의 관찰에 따르면 정치 영역에 대한 해석 과정(12-15절)에서 신학적 해석으로 전이되며(19절),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16-18절)을 언급한 다음에 22-24절에서는 종말론적 전망으로 확대되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⁴⁹⁾

4. 결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때로는 제사장의 정제된 언어로, 때로는 길거리의 외설적인 언어로 자신과 겨레가 마주친 현실과 운명을 표현하고 해석한다. 그런데 에스겔은 자신과 공동체가 처한 역사의 비극을 단지 정치와 외교의 역학 관계로만 해석하지도, 영적으로만 치환하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그들이 현실 정치와 외교에서 어쩔 수밖에 없이 선택해야 하는 정치와 외교 정책으로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겔 16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정치 조약을 맺었다가 끊어버리는 정치적 행보에 병행된다.

에스겔이 온몸으로 겪은 비극은 단순한 한 마디의 말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의도적 모호함으로 발현된다. 이것이 에스겔이 진리를 표현하

49) E. F. Davis, *Swallowing the Scroll*, 104.

기 위해 상징과 은유와 비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이것이 에스겔서가 난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저자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모호성의 기법을 활용하여,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모호한 정치의 현실을 살아가는 독자로 하여금 역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고백하도록 요청한다. 다시 말해 애굽과 블레셋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던 시드기야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경고한다. 에스겔서에서 계약 신학은 정치 조약의 옷을 입고 있지만 맹세를 업신여기는 세상의 이치와 같지 않고, 현실을 포함하지만 초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을 표방한다. 이곳이 종교와 정치가 공유하는 모호한 한계 지점이다.⁵⁰⁾

<주요어>

계약 신학, 정치 조약, 겔 16-17, 의도적 모호성, 본문의 자리

<Key Words>

Covenant Code, Political Treaties, Ez 16-17, Intentional Ambiguity, Sitz im Buch

* 원고접수일 2015년 2월 6일, 수정일 2015년 2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5년 2월 27일

50) 물론 성서의 역사를 정치권력의 역사로 보는 R. B. Coote, M. P. Coote, 『성서와 정치권력』, 장춘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과 같은 입장에서는 종교는 곧 정치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결코 모호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사장 전승에 서 있는 에스겔의 계약 신학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전승에 서 있는 예레미야의 계약 신학(예, 렘 31:31의 새 계약 [διαθήκην καινήν])과 신약에 나타나는 새 계약(눅 22:20; 고전 11:25; 고후 3:6; 히 8:8, 13; 9:15; 12:24 등), 또한 그들을 잇는 쿤란 히브리어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음의 연구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 김선중, “예언자와 목회자,” 「신학이해」 45 (2013), 73-96.
- 김선중,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 「Canon&Culture」 8 (2014), 195-220.
- 노희원, “구약의 계약(ברית)에 대한 어의론적 연구,” 「신학논단」 12 (1995), 5-35.
- 박동현, 『구약성경개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 박준서, “구약 계약신학의 연구: 제사기자의 계약신학을 중심으로,” 『구약 세계의 이해』, 서울: 한들출판사, 2001, 58-81.
- 박준서, 김영진, “고대 근동의 국제 관계와 국제 조약에 관한 비판적 연구,” 「구약논단」 12 (2002), 171-211.
- 박혜경, “에스겔의 나무와 요시아 종교개혁-에스겔 37:15-28에 나타난 상징과 역사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 (2012), 82-59.
- 유연희, “성서의 성(性):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 (2010), 53-74.
- 이종록, 『용서와 회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 허성근, “예레미야와 에스겔 예언의 유사성 비교,” 「신학과 목회」 18 (2002), 5-44.
- 황선우, “역대하 21, 23장의 다윗 계약에 나타난 다윗 왕조 회복의 소망,” 「Canon&Culture」 6 (2012), 97-122.
- Amsler, S., “מִקְוֵה אֵשֶׁת אֵשֶׁת,” *THAT* 2, 635-641.
- Barr, J.,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SCM Press, 1983.
- Blenkinsopp, J., *Ezekiel,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Block, D.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7.
- Bowen, N. R., *Ezek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 Brownlee, W. H., *Ezekiel 1-19*, WBC 28, Waco: Word Books, 1986.
- Buis, P., *La notion d'alliance dans l'Ancien Testament*, LD 88, Paris: Cerf, 1976.

- Chisholm, R. B. Jr, "The 'Everlasting Covenant' and the 'City of Chaos': Intentional Ambiguity and Irony in Isaiah 24," *CTR* 6 (1993), 237-253.
- Coote, R. B. and Coote, M. P., 『성서와 정치권력』, 장춘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 Davis, E. F., *Swallowing the Scroll: Textuality and the Dynamics of Discourse in Ezekiel's Prophecy*, JSOTS 78, Sheffield: Almond, 1989.
- Dijk-Hemmes, F. van., "Metaphorization of Women in Prophetic Speech: An Analyze of Ezekiel xxiii," *VT* 43 (1993), 162-170.
- Duguid, I. M., *Ezekiel and the Leaders of Israel*, SVT 56, Leiden: Brill, 1994.
- Durlesser, J. A., *The Metaphorical Narratives in the Book of Ezekiel*, New York: Edwin Mellen Press, 2006.
- Eichrodt, W., *Ezekiel: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0.
- Fishbane, M., "Sin and Judgement in the Prophecies of Ezekiel," *Interpretation* 38 (1984), 132-150.
- Grabbe, L. L., *Ancient Israel: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 London: T&T Clark, 2007.
- Greenberg, M., "Ezekiel 17 and the Policy of Psammetichus II," *JBL* 76 (1957), 304-309.
- Greenberg, M., *Ezekiel 1-20*, AB 22, New York: Doubleday, 1983.
- Hals, R. M., *Ezekiel*,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19, Michigan: Eerdmans, 1989.
- Hugenberger, G., *Marriage as a Covenant: a Study of Biblical Law and Ethics Governing Marriag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Malachi*, SVT 52, Leiden - New York: Brill, 1994.
- Hurvitz, A.,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Cahiers de la Revue biblique 20, Paris: J. Gabalda, 1982.
- Jenson, R. W., *Ezekiel*, Brazos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Bible,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 Keel, O., *The Symbolism of the Biblical Worl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and the Book of Psalms*, Indiana: Eisenbrauns, 1997.
- Kitz, A. M., *Cursed Are You!: The Phenomenology of Cursing in Cuneiform and Hebrew Texts*, Winona Lake: Eisenbrauns, 2014.
- Klein, R. W., 『에스겔: 예언자와 그의 메시지』, 박호용 역, 서울: 성지출판사, 1999.
- Kutsch, E., “tyrb obligation,” *TLOT* I, 256-266.
- Lang, B., *Kein Aufstand in Jerusalem: Die Politik des Propheten Ezechiel*, SBB,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1.
- Miller, J. M., and Hayes, J. H.,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Ortlund, E., “Intentional Ambiguity in Old Testament and Ugaritic Descriptions of Divine Conflict,” *UF* 38 (2006), 543-556.
- Peels, H. G. L., *The Vengeance of God: the Meaning of the Root NQM and the Function of the NQM - Texts in the Context of Divine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OTS 31, Leiden - New York - Köln: Brill, 1995.
- Peterson, B. N., *Ezekiel in Context: Ezekiel's Message Understood in Its Historical Setting of Covenant Curses and Ancient Near Eastern Mythological Motifs*,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s, 2012.
- Rom-Shiloni, D., “The Prophecy for ‘Everlasting Covenant’ (Jeremiah 32:36—41): An Exilic Addition or a Deuteronomistic Redaction?,” *VT* 53 (2003), 201—223
- Roose, H., “‘A Letter as by Us’: Intentional Ambiguity in 2 Thessalonians 2.2,” *JSNT* 29 (2006), 107-124.
- Swanepoel, M. G., “Ezekiel 16: Abandoned Child, Bride Adorned or Unfaithful Wife?,” P. R. Davies and D. J. A. Clines eds., *Among the Prophets: Language, Image and Structure in the Prophetic Writings*, JSOTS 14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84-104.
- Tsevat, M., “The Neo-Assyrian and Neo-Babylonian Vassal Oaths and the Prophet Ezekiel,” *JBL* 78 (1959), 199-204.
- Vawter, B. and Hoppe, L. J., *A New Heart: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zekiel*,

Grand Rapids: Eerdmans, 1991.

Wevers, J. W., *Ezekiel*, NCBC, Michigan: Eerdmans, 1982.

Woudstra, M. H., "The Everlasting Covenant in Ezekiel 16:59-63," *CTJ* 6 (1971), 22-48.

Wright, C. J. H., 『에스겔 강해: 새 마음과 새 영』, 정옥배 역, 서울: IVP, 2004.

Zimmerli, W., *Ezek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초록>

에스겔의 계약 신학

김선종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정치와 경제와 종교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을 분명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이들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는 주장도 있다. 히브리 낱말 ‘브리트’는 종교적인 뜻과 함께 정치적인 뜻도 지니고 있다. 종교의 맥락에서 사용될 때에는 주로 ‘계약’이나 ‘언약’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가리킬 때에는 ‘조약’으로 번역된다. 계약 신학은 성서신학의 핵심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도 계약의 관계로 묘사되고, 이러한 관계는 구약 주변세계의 정치 조약 체결 양식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에스겔 16-17장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에스겔서 전체에서 18번 나타나는 ‘브리트’가 이 두 장에만 12번 나타나며, 두 장에 각각 6번씩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브리트’는 16장에서는 종교의 맥락에서, 17장에서는 정치의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이들 두 장은 앞에서 나온 표현을 다시 언급하는 특별한 편집기법(Wiederaufnahme)에 따라 하나의 단락으로 여길 수 있다. 에스겔서의 최종 편집자는 이러한 두 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하고, 17장에서 느부갓네살과 맺은 계약과 하나님의 계약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종교와 정치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기술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의도적 모호성의 기법으로 하여금 저자는 모호한 세상에 살고 있는 독자로서 하여금 역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에스겔 16-17장에 나타난 계약 신학을 파악함으로써, 포로기에 활동한 예언자가 정의하는 정치와 종교 사상을 계약 신학의 빛에서 밝히려고 시도한다.

<Abstract>

Covenant Theology in the Book of Ezekiel

Prof. Sun-Jong Kim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Politics, economy, and religion are the essential elements that make up the human life, and cannot be detached from one another. According to their definitions, one thinks that they should be clearly separated, the other asserts that the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Hebrew word *bērît*(ברית) has both religious and political meanings. When it is used in the context of religion, it is translated as covenant or promise; when it appears in the context of politics, it is translated as treaty. Covenant theology is essential in the biblical theology i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people is described as a covenant relationship. This relationship is already reflected in a political treaty formula in the Ancient Near East.

This article pays special attention to Ezekiel 16-17 because *tyrb* that appears 18 times in the book of Ezekiel is used 12 times in these two chapters(6 times in each chapter). Also, *tyrb* in Ezekiel 16 is employed in a religious context whereas it is in political usage in Ezekiel 17. These two chapters may be considered as one unit by a redactional technique called *Wiederaufnahme* that takes again the same expression appearing in a previous passage. The final redactor of the book of Ezekiel binds these two chapters as one and utters a covenant that is made with Nebuchadnezzar together

with the one with God in Ezekiel 17. This textual arrangement intentionally mak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ambiguous. Ironically this technique of intentional ambiguity leads the reader living in an ambiguous world to confess who the real God of the history is. By analyzing Ezekiel 16-17 in the light of covenant theology, we try to reveal religious and political thoughts of the prophet Ezekiel who worked in an exilic period.

